July 1, Mon, 2024

당신 자신에게 가능한 한 가장 다정하게 말하라.

화, 자기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일출의 강변을 묘사하거나, 클럽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어린이를 묘사하거나, 남자가 결혼할 여자를 처음 마주친 순간을 묘사하는 것뿐이야.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써나가기만 하면 돼. 하지만 여기서 이 짧은 글 한편을 마무리하는 거야, 알겠지? -〈쓰기의 감각〉중에서

July 5, Fri, 2024

요양원

허준이 교수의 졸업축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일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양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 일인실이구나. 〈쓰기의 감각〉이라는 책에서 회복기 환자의 요양소 대목이 있다. "나는 하느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한다. 나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죽을 때 능력있고 편안히 죽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산다는 것.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것이 나의 동기부여가 된다면 나는 열심히 살겠지. 또 스티브잡스가 한 말도 기억난다. 시한부 인생이 되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자신의 관심사만 남는다고.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July 12, Fri, 2024

션 캐롤

션 캐롤의 quanta and field 를 읽고 있다. 내가 모르고 넘어갔던 양자역학과 QFT 사이의 갭을 잘 메워준다. 이것과 Mattuck 의 책과 그리고 Feynmann diagram for condensed matter 책을 참고해서 보면 아주 유용할 듯하다.

July 17, Wed, 2024

interatomic spring constant

hopping parameter 와 phonon 의 interatomic spring constant 를 따져보면 hopping parameter engineering 은 Berry phase 로 가능하다.

하지만 atomic phonon 에서 interatomic spring constant 의 engineering 은 그 방법이 모호해보인다.

하지만 PRB 109, 054102 논문에 의하면 interatomic spring constant 를 engineering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 보인다.

July 19, Wed, 2024

J Cano

J Cano 의 두개 논문이 arXiv 에 올라왔음. 읽어봐야 됨.

July 28, Sun, 2024

논어

공자는 고집불통에 빠져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는 인간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았다. 역으로 배우고 익히기를 게을리 하는 인간은 동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겼던 것이다.

문제는 익히기란 단번에 되지 ㅇ낳는데 있다. 반면 배우기는 단번에 될 수 있다. 그래서 익히기는 쉬지 않고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날때마다 늘 쉬지 않고 반복해서 이처럼 부지런히 배우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해 가는 인간상이라는 점을 〈논어〉의 첫구절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논어로 논어를 읽는다〉 -이한우